

# 코로나 19 대응 동향

2020.4.5.  
- 제10호 -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소: 265 Melk Street, Nieuw Muckleneuk  
전화: 012 460 2508  
이메일: embsa@mofa.go.kr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za-ko/index.do>  
페이스북: @KoreanEmbassySouthAfrica



## 1. 일반 동향

### ◆ 남아공 봉쇄조치(lockdown) 3.26 자정~4.16 자정

### ◆ 확진자 수 지속 증가 (44(토) 기준 확진자 1,585명)

- 44(토) 기준 남아공 내 확진자 수는 총 1,585명이며, 총 누적 사망자는 9명, 현재까지 누적 검사자수는 53,937명입니다.
- ※ 주별 확진자 통계 (전일 대비 증가자 / 사망자)

하우텡	693(△30/1)	웨스턴케이프	433(△80/1)
콰줄루나탈	232(△26/6)	프리스테이트	85(△1/1)
음푸말랑가	18(△5)	노스웨스트	11(△2)
림포포	18(△2)	이스턴케이프	25(△8)
노던케이프	7	기타	63

- 한편, 5곳의 타운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케이프타운 Khaylitsha, △요하네스버그 Alexandra, △더반Umlazi, KwaMashu, eMaoti

### ◆ 더반 내 확진자 이용 병원, 환자 수용 중단

- 콰줄루나탈주 확진자 11명 및 사망자 3인이 이용하던 더반 소재 St. Augustine's 병원은 현재 환자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병원을 3.1. 이후 이용한 환자는 033 846 6000 회선을 이용, 주 보건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 보건부 장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언급

-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42(목)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동 장관은 삼성전자 남아공법인의 휴대폰 기증식 참석 계기 한국의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2번째였으나 현재는 15번째로 내려가는 등 대규모 방역 및 진단, 이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선제적인 방식으로 코로나 위협 국면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한편, 43(금) 보건부 장관은 현지점에서 락다운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 ◆ 실제 감염자수에 대한 우려 증폭

- 남아공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실제 감염수는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습니다.
- 43(금) 보건부장관은 겉보기에 낮은 감염률이 "calm before the storm" 이라는 경고를 언급하였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확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테스트 범위 및 규모를 확장 시킬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 테스트 장비 수입 기간 등을 감안, 대규모 검사는 5월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5월 초 까지 감염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 라미포사 대통령, 아프리카연합 임원진, 회원국 정상들과 유선회의 개최

- 라미포사 대통령은 43(금) 아프리카연합 임원진 등 아프리카 8개국 정상들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과 유선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세계 범유행에 대한 아프리카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하우텡주 보건부, 개인보호장비 및 인공호흡기 기부 촉구

- 하우텡주 보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장비(PPE) 및 인공호흡기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단체·기업·NGO·개인 차원에서의 기부를 요청하였습니다.

### ◆ 두바이·도하 체류 남아공인 16명, 남아공 입국

-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두바이 및 도하에서 체류 중이던 남아공 16명이 4.2(목) 입국했으며, 이번 주말에도 16명이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하여 남아공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제관계협력부는 여타 국가들로부터 자국민 본국 귀환 요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계기에 남아공으로 오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외체류 중인 남아공인들을 귀환시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 타운십 인구 밀도 완화 프로젝트 추진

- 웨스턴케이프, 하우텡, 이스턴케이프, 콰줄루나탈의 대규모 타운십 주민 일부는 곧 인근 지역의 임시 거주지로 분산 수용될 예정입니다.
- 이는 초밀도 주거환경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저지 대책으로, 노인, 장애인, 판잣집 거주인들이 우선순위로 옮겨가게 됩니다.

## 2. 봉쇄 조치

### ◆ 봉쇄조치 기간 중 균인 및 경찰 과잉단속 논란

☞ **교민 여러분께서는 봉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한 출입 및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쇄조치 기간 중 교통 관련 수칙 위반 체포

- 봉쇄조치 기간 중 규정위반으로 총 17,209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요하네스버그에서만 최소 17명이 사적 사유로 타 도시를 방문하는 등 교통 관련 수칙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 특히, 웨스턴케이프(4,769명), 프리스테이트(3,098명) 및 하우텡(1,888명)이 체포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 요하네스버그 시장은 봉쇄조치 규정을 위반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관련 법 절차에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상기 기간 중 주 및 도시간 이동은 장례 목적으로는 허용이 되나, 사망증명서 및 공증된 사본을 지참, 관할 법원(magistrate) 및 경찰서장(commander)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귀환 날짜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 ◆ 주류 및 담배 판매 관련 사항

- 케이프타운 Dunoon 지역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던 주점이 500,000란드 상당의 주류를 몰수당하고 관련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한편, 남아공 정부는 담배는 필수품이 해당이 되지 않는바, 판매 금지되는 품목임을 밝혔습니다.

### 3. 경제 관련

#### ◆ 주요 상업 시설 영업시간 안내

상업 시설	일자	시간
울위스	매일	09:00-17:00
게임	주중	09:00-17:00
	일요일	09:00-15:00
	일요일	09:00-13:00
픽엔페이	주중	09:00-18:00
	토요일	08:00-17:00
	일요일	09:00-16:00
체커스	매일	07:00-18:00
클릭스	주중	08:00-16:00
	토요일	09:00-15:00
	일/공휴일	09:00-14:00

#### ◆ 피치, 남아공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란드화 지속 하락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4월 3일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한 단계 낮은 BB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채무 청산을 안정화하는 정책 부족,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성장 및 공공재정 악화 등을 하향 조정의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 2020/21 회계연도 남아공 재정 적자에 대한 전망도 지난 주 무디스가 예상한 8.5% 보다 더 높은 15%로 전망하고, 남아공의 등급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 피치의 남아공 신용등급 하향조정 영향으로 4.3. 6시 27분 란드화는 미화 1달러당 2.85% 약화된 R19.03에 거래되었고, 전문가들은 곧 R20란드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산소호흡기 1달 내 남아공 내 생산 가능

- 전국자동차부품 및 관련제조업체협회(Naacam)는 특허기간이 끝난 영국산 기계식 산소호흡기, "Penlon Nuffield 200" 에 대한 역설계가 종료되어 한 달 이내에 남아공 기업들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남아공에는 민간과 공공분야를 합쳐 총 6,000개의 산소호흡기가 있지만 이들 모두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없어 코로나19가 완만하게 확산되는 경우 산소호흡기 1대당 50명, 최악의 경우 1대당 200명이 사용하는 산소호흡기 부족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로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 BNP파리바, 2020년 남아공 경제성장을 마이너스 4% 전망

-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는 남아공의 봉쇄조치로 인한 공급망 악화, 봉쇄조치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수요 감소, 남아공 투자신용등급의 정크단계 하락으로 인해 해외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2020년 남아공 경제 성장(GDP)을 -4% 전망하였습니다.
  - BNP 파리바는 2월 순환단전 실시 때 경제 성장을 0.8%에서 0.5%로 하향조정하였고,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자 다시 0.2%하향 조정 후 다시 -4%로 재조정하였는데, 음보웨니 남아공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에 자금지원 요청가능성도 시사하였습니다.

#### ◆ 고용주, 피고용인에게 코로나 19검사 강제 가능

- 남아공정보규제기관(South Africa's Information Regulator)은 고용주가 근무환경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용인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피고용인의 근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고용인은 피고용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건당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코로나 감염여부를 물어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으로 밝혀질 경우 결과가 보건당국으로 자동 통지됩니다.

### 4. 영사 관련

#### ◆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에 대규모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 모든 한국 입국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증상이 나타나는 입국자는 공항에서 곧바로 격리되지만 증상이 없는 내국인의 경우 집으로 돌아가 14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 코로나19 환자 대다수가 해외 입국자에서 나오고 있는 서울시는, 모든 입국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대규모 도보이용형(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입국시점에 증상이 없는 서울시 거주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직전에 상기 선별진료소나 각 구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 워크스루 진료소는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거주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국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사전 설치

- 2020.4.1.(수) 0시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반드시 입국 전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대상자 :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진단앱’ 설치 대상자 : 단기체류자 및 격리 면제자인 능동감시 대상자
- ☞ 상기 앱 설치 관련 [주남아공대사관 홈페이지] - [현지 주요뉴스] - [공지사항] -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한국 입국 내·외국인 설치앱 안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결입국 동향

### ◆ 레소토

- (확진자 미발생) 현재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 보츠와나

- (확진자 동향) 4.1 기준 확진자 4명, 사망자 1명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 발표는 없습니다.
  - 1856명 격리조치, 증상 의심자 593명(189명 음성 판정)
- (락다운 조치 실시) 4.2 자정부터 4.30 자정까지 28일간 락다운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비상수권법 규정을 관보에 4.2 게재하였습니다.
  - 자택(마당 공간 포함) 원격근무 원칙, 08:00-20:00 근거리 필수재 구입을 위한 이동은 허용(식당은 10:00-20:00 테이크어웨이 영업만 허용)
  - 위반시 5천폴라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예외적인 이동 신고서(Form A) 및 필수서비스 제공자 양식(Form B) 게재
  - 3.11 이후 고위험국 출발 또는 경유한 입국자중 격리조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 5일내 신고 의무
  - 학교 및 술집 운영 중단, 비자 서비스 중단

### ◆ 에스와티니

- (확진자) 3.31(화) 기준 에스와티니 내 확진자 수는 총 9명
- (부분적 봉쇄 조치) 에스와티니 정부는 3.27.(금)부터 20일간 부분 봉쇄조치를 시행중입니다. 봉쇄 기간 동안에는 필수 서비스 관련 사업장 운영 및 필수품 운송을 위한 국경 이동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행한 허가증(permit)이 요구됩니다. 동 허가증은 에스와티니 상업산업통상부에 이메일 또는 Whatsapp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에스와티니 정부는 필수 서비스에 △세금 징수와 △장례식장을 추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관련) 에스와티니 보건부 장관은 음바바네에 위치한 연구소를 국내 자체 코로나19 검사실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기술자가 4.5(일) 오전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4.4(토)부터 적극적인 사례(active case)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자가격리 중인 약 2천여명 및 동인들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증상확인(screening) 및 모니터링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6.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 동향

### ◆ 국내 확진자 동향

- 4.4(토) 0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총 10,156명(해외유입 688명), 사망 177명이며, 총 누적 검사자 수는 455,032명입니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발생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는 해외 주요국가로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단시설 등을 위주로 한 소규모 발생 사례들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 우리 정부 주요 정책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합니다.
  - 우리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 조치 (~4월 19일까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중전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 구축 △실시간 이탈자 관리를 통한 해외유입 환자 관리 강화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 감소, △신규 집단발생 건수 큰 폭으로 감소

### ◆ 국제사회 동향

- 미국, 코로나19로 3월에 70만명 해고...실업률 4.4%
  -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3월 들어 중순까지 70만 명이 고용주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실업률이 4.4%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창궐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경제 영업활동 제한이 유일한 방역 대책으로 제시되면서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은 현재 90% 인구가 외출자제 요구를 당하고 있는데도 확진자는 25만 명을 넘고 사망자는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4월 무서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 국민에게 경고했는데 6월까지 사망자가 최저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미국 국무부는 생사와 직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현재 자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 미 국무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했으며, 재개일이 언제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사우디 국영방송 “한국, 봉쇄않고 코로나 곡선 꺾은 유일한 곳”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이 한국이 특정 지역 봉쇄나 통행금지령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알아라비아 방송은 3일(현지시간) 영문 기사를 통해 “전 세계가 부분적 또는 전면 봉쇄와 통행금지령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가운데 오직 한나라가 경제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런 조치 없이도 전염병을 통제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바로 한국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증가
- 일본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4기준 4,209명으로 증가했으며,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 아프리카 연합(AU), 코로나19 대응 연대 강화
- 4.3.(금) 개최된 AU 연합 임원진 유선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아프리카 연대와 통합 정신으로 인도주의적 및 무역 체계를 설립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대륙 내 생산 확대 외에도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확산
-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테스트 해보자” 고 제안, 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 또한, 세계 곳곳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아시아포비아” 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한편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해외 입국자로 변화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 ☞ 상기 QR 코드를 통해 우리 대사관의 페이스북에 접속, 관련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용 방법
  - ① iOS : 카메라 실행 후 상기 이미지 스캔
  - ②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내 QR 코드 관련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실행 후 상기 이미지 스캔

혹시 주변에 대사관 소식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적극 전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